

# 광주·전남 비은행권 자산건전성·수익성 ‘빨간불’

### 지난해 부실채권 전년보다 4%p 넘게 올라 9년만에 적자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원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비은행예금취급기관(비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즉 부실채권을 가리키는 고정이하여신비의 비율이 1년 새 4%p 넘게 오르면서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비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함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채권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비율이다.

지역 내 비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2.69%로 전년(1.27%) 대비 1.42%p 상승했고, 새마을금고 역시 3.41%로 전년(2.17%)보다 1.24%p 올랐다.

저축은행의 경우 7.86%로 전년(3.32%)에 견줘 4.54%p 올랐는데, 이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대출 연체율 상승 및 부동산 PF 부실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비은행이 지역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데다, 지역경제에서 건설·부동산업의 몫이 크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의 전체 여신액 대비 비은행 여신액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5.8%로 전국(15.9%)보다 높았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3번째로(5.4%) 높은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설·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주문석 한국은행 광주전남기획금융팀 과장은

"지역 내 건설·부동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 부실채권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비은행의 수익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역 비은행들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을 가리키는 총자산순이익률이 모두 감소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전년 대비 각각 0.16%p, 0.34%p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22%로 전년(1.11%)보다 1.33%p 하락해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민들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대손비용(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 증가,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지역 내 비은행에서 불어난 대손비용을 메우기 위해 투

입한 대손충당금을 늘린 것도 수익성 지표 하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전남지역 비은행의 자금 유동성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67.3%), 새마을금고(124.1%), 저축은행(205.1%) 등 전년에 견줘 각각 3.5%p, 19.4%p, 36.9%p 상승하는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비은행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PF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비은행의 경우 지역별로 세분화된 경영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금융 불안에도 적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비은행 경영 관련 자료의 확충과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 수집 용이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성년의 날 선물 뭐가 좋을지?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객들이 명품 브랜드 '구찌' 향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성년의 날(5월20일)을 앞두고 선물용 향수를 선보인다. 2층 향수매장에서 디올, 샤넬, 구찌, 티파니 등 다양한 브랜드의 향수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가방 브랜드 '메트로시티'는 17일까지 정상품 20% 할인, 주얼리 브랜드 '스와보르스'와 '제이에스티나'에서는 품목별 할인 혜택과 함께 감사 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서

지난해 301만명...증가세 돌아서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단체총연합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000명과 비교해 25만5000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작년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 속에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 5000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000명으로 300만명을 밑돌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

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작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32년 만에 '전국구 은행' 탄생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를 영업 단위로 하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이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 국민·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구은행이 그 첫 사례가 됐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 당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 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협은행, 광산구에 '천원 한끼' 기부금 전달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청을 찾아 '천원 한끼'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총괄),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천원 한끼'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광산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천원 한끼' 식당은 풍나물국밥을 판매하며, 65

세 이상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1000원에 식사가 가능하다.

식당은 광산구와 광산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광산구 우산동에 제1호 '천원한끼' 식당이 개소해 많은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내춘 본부장은 "어르신들의 하루 중 어려운 숙제인 식사 해결이 '천원 한끼' 식당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IT인재 육성 '스마트인재개발원' 이전

### 동구본점 중앙로 광주빌딩으로

AI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IT인재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인재개발원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본격적인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선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오는 25일 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 광주빌딩으로 동구본점(교육지원본부 등)을 이전해 10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인재개발원 동구본점은 8개층 건물 내 2층부터 8층을 강의시설과 교육지원 시설로 운영한다. 교육강사 6개팀과 지원인력 등 40여명이 근무한다. 'K-Digital' 과정을 비롯 기업멤버십 SW,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 등 10개 과정을 교육한다.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LG 전자 DX SCHOOL도 입주한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광주빌딩 동구점 외에도 남구점(송하동 CGI센터), 서울 서초점, 전남 순천점과 목포점 등을 운영중이다. 올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인공지능사관학교 10개반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21개 과정·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10개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채용연계형 SW캡스 5개 과정 등이다. 전체 과정에서 1300여명의 SW인력을 양성될 계획이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2016년 설립된 지역선도형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소다. 대학원 학비 등을 지원해 자체 육성한 50여 명의 강사들이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29명이 개발원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86%(105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곡성장미 동행축제

### 17~26일 특산물 판매전 등 진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7일부터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와 함께한다.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곡성세계장미축제(5월17~26일) 기간 동안 특산물 판매전, 홍보물 증정 이벤트,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동행축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곡성군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특산물 판매전'을 운영한다. 판매전에는 17개 기업이 곡성 대표 농·특산물인 멜론, 꽃감, 토란양파, 곡성과사비, 청국장 등 88개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기간 중 2만원 이상 구매한 구매고객에게 이벤트 응모권을 지급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쉐어봉의 수건, 쉐어커피는집의 드립커피 등 지역 향토기업의 우수제품을 증정한다.

또 20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kbc우리동네총동만마켓'에서 방송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곡성멜론, 토란국수, 토란파이 등 곡성지역 우수제품을 홍보한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이 열리는 23일에는 곡성



세계장미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충전식 카드형 은누리상품권 1만원 이상 충전 시 500원권 은누리 상품권과 경품응모권을 제공한다.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동행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지역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가정의달을 맞아 곡성세계장미축제도 즐기고 우리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한 동행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6위

### 2.5조원...최태원·구광모 앞서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오른 하이브의 총수(동일인)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이 국내 그룹 총수 6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88 곳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88개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9016억원여치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1조440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4조930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4조160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조6216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총수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주식을 2조5447억원여치 보유하고 6위에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현시점에서 방 의장은 주식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1152억원)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202억원)보다 순위가 높았다.

또 상위권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2조4천547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2조233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1조8천914억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1조6천624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HD현대1조4천224억원), 방준혁 넷마블 의장(1조3천388억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1조1천30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에서 최연소 총수는 1981년생으로 올해 만 43세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여성 총수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유정현 넥슨 NXC 감사, 장영신 에경 회장, 박춘희 소노인터내셔널 명예회장 등 4명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3.00 (+22.66)
↑ 코스닥	870.37 (+8.22)
↓ 금리(국고채 3년)	3.375 (-0.079)
↓ 환율(USD)	1345.00 (-24.10)